

## 진용(金庸) 무협소설 『설산비호(雪山飛狐)』의 추리소설 서사 기법 운용 방식 고찰\*

유경철\*\*

### 목 차

1. 들어가기
2. 『설산비호』 이야기의 이원성 양상과 그 특징
3. 진술자와 진술, 그리고 사건의 진상
  - 1) 진술+진술을 통한 진상으로의 접근
  - 2) 4인의 진술과 전사㉠·㉡의 진상
  - 3) 3인의 진술과 전사㉢의 진상
  - 4) 남은 '현재 이야기'와 남아있는 의문의 해소
5. 나가며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설산비호』를 대상으로 하여 진용의 추리소설 서사 기법 운용 방식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첫째, 진용은 추리소설의 이원적 이야기 방식을 채택하여 '현재 이야기' 속에서 '전사(前事)'와 관련된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잊힌 진상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전사'와 '현재 이야기'가 일대일이 아닌 다대일로 대응하게 하는 보다 복잡한 방식을 취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전사'의 사실들을 단서로 하여 다시금 '현재 이야기'가 진행도록 하는 창의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진용은 『설산비호』에서 전사의 전말과 진상, 악한의 실체 등을 밝히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다수 진술자의 진술

\* 본 연구는 2024년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특성화연구비 지원을 통해 진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학부 중국학전공 교수

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들 진술자의 진술은 그 신분, 정체, 그리고 정보를 얻게 된 경로 등에 따라 내용과 성질, 또는 주안점이 달라진다. 진용은 진술자의 불완전한 진술을 마치 퍼즐을 완성하듯 조각조각 더하고 짜 맞춰 사건의 전말과 진상, 악한의 실체를 드러낸다.

**키워드:** 진용(金庸) 설산비호 추리소설 중국 대중소설 츠베탕 토도로프

## 1. 들어가기

최근 중국에서는 웹소설이 성황이다. 대중 통속소설이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나면서 그 생산, 유통, 소비의 활로를 획득한 결과이다.<sup>1)</sup> 이로 인해 다양한 장르의 통속소설이 출현하고 활성화되었다. 무협소설, 로맨스 소설, 판타지 소설, SF 소설 등 기존에 익숙한 장르소설에 더해 타임슬립 소설(穿越小说), 도굴소설(盜墓小說), 현환소설(玄幻小說), 선협소설(仙俠小說), 이차원소설(二次元小說), ‘역사 가능성 소설(歷史可能性小說)’ 등 전에 없던 새로운 장르의 소설이 등장하여 독자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sup>2)</sup> 참신하고 기발한 상상력에 기반한 새로운 작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가능하게 한 미디어 환경과, 항상 새로운 작품의 등장을 갈구하는 독자가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다양한 장르소설이 자기 독자를 확보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해당 장르소설이 가지는 독특한 장르적 상상력을

1) 유정원, 「중국 웹 소설 성장에 대한 소고」, 『중국과 중국학』, 34집,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8년, 5월, 33쪽 참조.

2)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웹소설은 장르별로 구분, 분류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물품에 라벨 혹은 태그(標籤)를 붙여 분류하듯이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성질과 개념 등으로 라벨 혹은 태그(標籤)를 붙여 세분화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화진, 「중국의 플랫폼 ‘너머’의 연결과 취향 공동체의 가능성: 웹소설 태그(標籤)를 중심으로」, 2024년 한국중국어문화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무협소설에는 무협소설만의 장르적 상상력이 작용한다. 그 무슨 일이든 일어날 법한 강호에서 무공과 능력이 출중한 협객들이 대립하고 다투는 이야기를 펼치는 무협소설은 무공의 특성, 무림 문파의 관계, 인물간의 은연과 사연 등에 관한 특별한 장르적 상상력에 기반한다. 타임슬립 소설의 경우는 주인공이 과거의 어느 시간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특별한 어떤 사건에 개입한다, 라고 하는 특유의 상상력에 바탕을 둔다. 선협소설은 인간계와 신선계를 넘나들며 벌이는 인간과 신선 또는 요괴 간의 대립과 갈등, 사랑 등에 관한 특별한 상상력이 작용하는 소설 장르이다. 특유의 장르적 상상력은 자기 장르 독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르 특유의 상상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르의 독자가 되기 어렵다.

또 하나, 장르소설이 독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캐릭터의 힘을 들 수 있다. 소설 장르마다 특유의 캐릭터를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 무협소설의 경우는 무공을 갖춘 협객이 등장하며, 청춘 로맨스 소설에는 청춘 남녀(혹은 남남, 여여 등)가 주요 인물이 된다.<sup>3)</sup> 선협소설에서는 신선계의 신선이나 요괴 등이 인간과 더불어 이야기의 중심인물로서 활동한다. 이렇게 장르의 성격에 따라 캐릭터의 신분과 정체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이들이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독자의 공감을 획득하지 못하는 캐릭터로는 특유의 장르적 상상력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기 어렵다.

장르 특유의 상상력,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 등 이외에, 최근 장르소설이 독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요소로서 추리소설적 이야기 방식과 기법의 운용을 들 수 있다. 탐정소설 혹은 추리소설처럼 직접 범죄를 다루는 내용의 소설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장르소설들은 여러 가지 사건과 단

3) 여성 웹소설 독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동성애소설(同人文化小説)의 부상이다. 갈수록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동성간 사랑에 관한 소설 역시 일종의 하위장르를 형성하고 있다. 吳優, 「網絡空間中文學接受者的主體特徵」, 『藝術廣角』, 2019年 第1期, 33쪽 참조.

서를 배치하여 독자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독자로 하여금 전체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게 하거나 등장인물 간의 은연 및 애정 관계를 추론케 함으로써 작품에 보다 깊게 빠져들도록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sup>4)</sup> 탐정 소설이나 추리소설이 원래부터 환영받는 통속소설 장르이거니와, 그 이야기 틀과 기법의 운용은 장르소설마다의 기존 이야기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이야기 자체의 짜임새를 보다 좋게 만들어줌으로써 통속 장르소설의 독자 흡입력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의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리소설의 이야기 방식과 기법을 운용하고 있다면, 거기서 운용하는 기법의 특징과 스타일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장르의 소설 작품 및 작가의 특징과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독특한 장르적 특성을 지닌 작품을 가능한 동일한 지평에서 따져보자는 것인데, 이로써 장르의 틀을 벗어나 각각의 소설이 가지는 통시적 혹은 공시적 특징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각 소설 장르가 가지는 장점과 특성을 오히려 보다 잘 드러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본 연구는 진용 무협소설 『설산비호』의 추리소설적 이야기 방식과 그 기법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알다시피, 진용은 무협소설 장르에서 독보적인 작가다. 무협소설 장르에서 그가 보여준 성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협소설이 한 때 중국 대중 통속소설의 대표 장르였음을 감안하면 진용을 중국 대중 통속문학 장르를 대표하는 작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이런 이유로 장르소설의 추리소설 기법 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작업을 진용의 무협소설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진용의 여러 작품 중에서 『설산비호』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이다. 『설산비호』는 12편의 장편소설, 2편의 중편소설, 1편의 단편소설로 이루어진 진용의 작품

4) 『량야방』, 『삼생삼세 십리도화』, 『마도조사(魔道祖師)』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에서, 장편소설 가운데서 가장 편폭이 짧다. 진용 무협소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작품이 너무 길면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설산비호』는 편폭이 짧아 다른 작품에 비해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물론, 많은 연구자들이 인정하듯이, 이 작품은 진용 무협소설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sup>5)</sup> 하지만, 이 작품은 간단한 작품은 아니다. 편폭은 짧지만, 『설산비호』는 이야기의 구성과 전달 방식에 있어서 진용의 여타 작품보다 새롭고 독특하며, 다른 작품에 비해 추리소설적 이야기 방식과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두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필자는 『설산비호』의 추리소설 기법 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하나는 추리소설—혹은 탐정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6)</sup>—에 대한 토도로프의 분석틀인 ‘범죄이야기(the story of the crime)’, 혹은 ‘먼저 일어난 이야기(the first story)’와 ‘수사이야기(the story of the investigation)’, 혹은 ‘나중에 일어난 이야기(the second story)’ 개념을 가지고<sup>7)</sup>, 『설산비호』에서 진용이 두 가지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그 양상과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피도록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추리소설 장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사건의 전말 혹은 진상, 그리고 범인 또는 악한 등을 밝히는데 있어서 『설산비호』는 어떤 방식을 운용하여 그것을 이뤄내는지에 대해서

- 5) 張秀奇·李志英 編著, 『一個人的江湖』, 中華工商聯合出版社, 北京, 2003年, 49~50쪽 참조.
- 6) Tzvetan Todorov의 「The Typology of Detective Fiction」에서 Detective Fiction은 탐정소설로 번역하는 편이 가깝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탐정소설보다는 추리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는 ‘탐정’이라는 직업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장르를 지칭하는 데 있어서 탐정소설은 오히려 하위 장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글에서는 토도로프의 Detective Fiction과 그 하위 종인 Whodunit은 각각 추리소설, ‘추리소설’로 구분하여 표기할 것이다.
- 7) 이 글에서는 유제호 옮김의 「탐정 소설 유형론」(『산문의 시학』, 예림기획, 2003년)의 번역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였다. 다만, ‘the first story’, ‘the second story’ 등과 같은 일부 개념은 영역본을 참고하여 맥락과 의미에 맞게 직접 손을 보았다. 또한 본문에서는 ‘먼저 일어난 일’과 ‘나중에 일어난 일’ 등에 해당하는 『설산비호』 속 내용을 ‘전사(前事)’와 ‘현재 이야기’ 등으로 지칭하였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진용이 추리소설의 특징인 이야기의 이원성 운용에 있어서 일대일이 아닌, 보다 복잡한 일대다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나아가 ‘먼저 일어난 이야기’를 나중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단서로 하여 ‘나중에 일어나는 이야기’ 혹은 ‘현재 이야기’가 새롭게 촉발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을 지적하고, 또 사건의 전말과 진상, 악한의 실체 등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다수 진술자의 불완전한 진술을 조각조각 더하고 짜 맞춰 점차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데 있어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 2. 『설산비호』 이야기의 이원성 양상과 그 특징

진용의 네 번째 작품인 『설산비호』는 1959년, 홍콩의 신문 『신만보(新晚報)』에 연재되었다. 그 후, 수정 및 보완을 거쳐 1970년대 『명보만보(明報晚報)』에 다시 연재되었다. 1994년에 홍콩중문대학출판부를 통해 『Fox Volant of the Snowy Mountain』이라는 제목으로 영역 출간되기도 하였다.<sup>8)</sup> 이 작품은 진용의 작품 중 비교적 초기작에 속하며, 그 분량 역시 그다지 길지 않다. 분량이 짧은 대신, 다른 작품에 비해 작품의 열개가 독창적이며 짜임새가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다른 무협소설 작품은 주인공이 협객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작품의 이야기는 청 건륭 45년(1780년) 3월 15일 아침녘에 시작하여 그날 밤 사이에 마감된다. 하루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 작품의 본 이야기인 셈이다. 하지만, 하루 동안의 사건과 연관된, 다시 말해 현재의 사건을 발생하게 한 과거 사건들이 소환되어 작품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과거 사건의 소환은 추리소설(Detective Fiction)에서 흔히 볼 수 있

8) 傅國涌, 『金庸傳』, 北京十月文藝出版社, 北京, 2003年 9月, 175쪽, 591-595쪽 참조.

다. 토도로프에 따르면, 추리소설의 이야기에는 이원성이 존재한다. 즉, 추리소설에서는 ‘범죄 이야기(혹은 먼저 일어난 이야기)’와 ‘수사 이야기(혹은 나중에 일어난 이야기)’가 같이 존재하며<sup>9)</sup>, “작중 인물이 자기가 들은 말 또는 관찰한 행위(이것이 범죄 이야기 또는 먼저 일어난 이야기를 구성할 것이다—인용자 주)를 둘째 이야기(수사 이야기) 안에서 전달해주는”<sup>10)</sup> 방식을 취한다. 말하자면, 추리소설은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시간적으로 나중에 진행되는 수사의 과정 속에서 소환 혹은 재구성하여 수사의 이야기를 완성해내는 것이다.

『설산비호』의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현재에 모종의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났던 사건들—이 사건들은 ‘작중 인물이 자기가 들은 말 또는 관찰한 행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을 소환해내고, 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삼아 현재의 사건이 다시금 이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났던 사건들을 범죄적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 나중에 현재 벌어지는 사건에서 그 진상이 드러나는 점을 볼 때, 『설산비호』의 이야기는 추리소설 이야기의 이원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설산비호』 이야기의 이원성 양상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 간단하지 않다.

첫 번째, 『설산비호』는 ‘먼저 일어난 이야기’와 ‘나중에 일어난 이야기’가 일대일이 아닌 다대일로 대응되는 면을 가진다. 이제 ‘과거에 먼저 일어난 이야기’를 ‘전사(前事)’, ‘나중인 현재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현재 이야기’로 지칭한다면, 『설산비호』의 ‘현재 이야기’는 앞서 말한 대로 건륭 45년 3월 15일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것이고, ‘전사’는 ‘현재 이야기’와 관련된 과거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우선, ‘현재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작은 사건으로 단계를 나눌 수 있다.<sup>11)</sup>

9) 츠베탕 토도로프 지음, 유제호 옮김, 「탐정 소설 유형론」, 『산문의 시학』, 예림기획, 2003년, 84쪽 참조.

10) 츠베탕 토도로프 지음, 위의 글, 위의 책, 87쪽.

11) 『설산비호』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은 호비(胡斐)가 옥필산장을 방문

- ① 아침녘 장백산 근처 설원에서 여러 무리가 철합(鐵盒)을 두고 쟁탈전을 벌인다(제1장)<sup>12)</sup>
- ② 옥필산장(玉筆山莊)에서 한 바탕 소란이 발생한다(제2장)
- ③ 철합 속의 ‘군도’와 관련된 일련의 ‘전사’를 공유한다(제3장, 제4장, 제5장, 제7장)
- ④ 무리들이 숨겨진 보물찾기에 나선다(제8장)
- ⑤ 옥필산장에서 계략이 펼쳐져 묘인봉(苗人鳳)이 위기에 빠진다(제9장)
- ⑥ 호비와 묘약란이 사랑에 빠진 가운데 호비와 묘인봉이 대결을 펼친다(제10장)

‘전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 약 130-140년 전 이자성(李自成)의 네 호위무사 간에 발생한 분규와 그 후로 대를 걸쳐 보복전이 전개된 내막<sup>13)</sup>

하여 묘약란(苗若蘭)을 짧게 만나는 간단한 내용이다.

- 12) 철합 쟁탈전에 참여한 무리는 셋이다. 하나는 천룡문(天龍門) 소속의 조운기(曹雲奇), 주운양(周雲陽), 완사중(阮士中), 은길(殷吉), 전청문(田靑文, 여) 등이다. 다른 하나는 녹림음마천(飲馬川) 소속의 도백세(陶百歲)와 그의 아들 도자안(陶子安) 등이며, 나머지 무리는 유원학(劉元鶴), 웅원헌(熊元獻), 정삼랑(鄭三娘, 여) 등이다. 조운기는 막 천룡문 북중의 장문을 이어받은 인물이고, 주운양은 그의 동료, 완사중은 그들의 사숙, 은길은 남중의 장문으로 천룡문의 대표를 맡기로 되어 있는 인물, 전청문은 전임 장문 전귀농(田歸農)의 딸이다. 도자안은 전귀농의 예비 사위이고, 도백세는 젊은 적 전귀농과 한패거리였다. 유원학은 청 조정의 어전(御前) 시위(侍衛) 18명 중 한 명이고, 다른 사람은 북경에 근거를 둔 평통표국(平通標局) 소속이다.
- 13) 약 130-140년 전, 명 말 이자성은 난을 일으켜 북경을 점령했다가 혼란을 틈 타 관내로 진입한 청 군대에게 패해 도주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호(胡), 묘(苗), 범(范), 전(田) 씨 성을 가진 호위무사가 있었다. 이자성이 위기에 빠지자 ‘비천호리(飛天狐狸)’라는 별명을 가진 호 씨 무사가 계책을 써서 그를 빼돌린다. 하지만, 나머지 세 사람에게 오해를 사게 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얼마 후, 비천호리의 아들이 세 명의 무사를 찾아가 진상을 알린다. 비천호리 덕분에 이자성은 아직 살아 있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막대한 재물을 숨겨두고서 자신의 ‘군도(軍刀)’와 지도에 이 장소에 대한 단서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었다. 진상을 알게 된 세 사람은, 일단 이자성의 생존에 관한 사실을 100년간 발설하지 않기로 하고, 목숨을 끊어 비천호리에게 사죄한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세

- Ⓑ 27년 전 호일도(胡一刀)와 묘인봉의 닳새에 걸친 대결과 숨겨진 진실  
 Ⓒ 며칠 전 밤 전귀농의 죽음과 그와 관련된 내막

이 전사들은 ③의 단계에서 소환된다. 전사 ①·②·③의 세 사건이 소환되어 작중인물과 독자에게 공유되는 것이다—이를 ③ [A] - ③ [B] - ③ [C] 와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③ [A] - ③ [B] - ③ [C] 가 『설산비호』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대목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이 대목이 차지하는 길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전체 10개 장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에서 ①는 제3장, ②는 제4장과 제5장, ③는 제7장을 차지한다. 전사가 전체 작품의 거의 1/2에 육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야기 ①과 ②는 ③ [A] - ③ [B] - ③ [C] 를 전개하기 위한 도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③ [A] - ③ [B] - ③ [C] 는 『설산비호』의 중심 부분인데, 이 부분의 구성 방식이 ‘현재 이야기’와 ‘전사’가 일대일로 연결되는 간단한 이원성의 방식이 아니라 ‘현재 이야기’에 여러 개의 ‘전사’가 연결되는, 일대다(一對多)의 다소 복잡한 이원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정도는 복잡한 축에 끼지 않을 수 있다. 일대일의 이원성보다 일대다의 이원성을 구성해내는 것이 더 복잡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를 통해 볼 때, “작가들로 하여금 텍스트와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매우 엄격한 사전 계획을 갖추게끔 요구하는”<sup>14)</sup> 추리소설의 글쓰기 조건에 진영이

사람의 후손들은 호 씨 집안에게 원한을 갖는다. 세 사람이 호 씨 집안에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후손에 남기지 않고 성급하게 자결하였기 때문이다. 20년 후, 그 후손들이 복수를 위해 비천호리의 아들을 찾아온다. 이미 늙고 쇠약해진 아들은 보관 중이었던 군도와 지도를 넘기고 역시 자결한다. 하지만, 호 씨와 나머지 세 가문 간은 물론이고, 나머지 세 가문 사이에서도 ‘군도’ 등의 보관에 관한 문제로 다툼이 끊이지 않아 후손 중 편히 생을 마감하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결국, 옹정 초년(1723년)에 세 가문의 후손들은 분쟁을 종식하고 향후 이자성의 ‘군도’는 전 씨 가문에서, 지도는 묘 씨 가문에서 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호 씨 가문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군도’를 징표로 삼아 연합하기로도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군도’와 지도가 이자성이 남긴 막대한 재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후손은 극히 일부일 뿐이었다.

14) 이브 뢰테르, 김경현 옮김, 『추리소설』, 문학과지성사, 2000년 4월, 104쪽.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용에게는 ‘다 계획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어울리는 셈이다.

두 번째, 『설산비호』는 ‘전사’의 공유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현재 이야기’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사’를 통해 몰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이야기’가 새로운 사건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취한다. 토도로프는 ‘먼저 일어난 이야기’와 ‘나중에 일어난 이야기’의 관계에 따라 추리소설을 세 가지 즉 ‘추리소설(whodunit)’, 공포소설(thriller), 긴박소설(suspense novel) 등으로 분류하였다.<sup>15)</sup> ‘추리소설’은 ‘나중에 일어난 이야기’가 그 자체로서 아무 중요성이 없는 이야기로서, 단지 독자와 범죄 이야기 간의 중재 역할을 할 뿐인 경우이고, 공포소설은 ‘먼저 일어난 이야기’를 제거하고 ‘나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활성화시키는, 범죄 행위가 술화와 동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탐정 또한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 경우이며, 긴박소설은 공포소설과 비슷하게 ‘나중에 일어난 이야기’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며 주된 흥미 역시 ‘나중에 일어난 이야기’ 즉, 현재 시제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비롯되는 경우이다.<sup>16)</sup> 물론, 토도로프도 인정하듯 장르 자체는 항상 가변적이며, 또 장르의 속성 자체도 끊임없이 섞이고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어느 한 작품을 어느 한 장르에 귀속시켜 규정하는 작업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다만, 추리소설에 관한 토도로프의 위의 분류법을 참고하자면, ③ [A] 는 ‘추리소설’에 가깝고, ③ [B] 와 ③ [C] 은 공포소설 혹은 긴박소설에 가깝다.

③ [A] 는 철합 속에 담긴 물건—이자성의 ‘군도’이다—을 단서로 하여 이자성의 네 호위무사 사이에서 발생한 비극적 갈등과 그로부터 시작된 호 씨와 나머지 세 가문 간의 대를 이은 보복의 역사, 이자성의 ‘군도’에 얽힌 사연과 그 행방 등의 정보가 보수화상(寶樹和尙)과 묘약란을 통해 작중인물들과 독자에게 전달되는데, 여기서의 정보는 작중인물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밝히

15) ‘추리소설’, 공포소설, 긴박소설 등의 용어는 유제호 옮김의 앞의 책에서 가져왔고, 부가한 영문 용어는 Tzvetan Todorov, 『The Poetics of Prose』, Translated by Richard Howard, Cornell University Press, 1977에서 따왔다.

16) 츠베타프 토도로프 지음, 앞의 책, 앞의 글, 84-97쪽 참조.

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질 전사⑥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작중인물과 독자에게 주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③ [A] 는 ‘부재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인 ④와 ‘현전하지만 무의미한 이야기’인 ③로 구성된<sup>17)</sup>, 토도로프에 따르면, ‘추리소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③ [B] 와 ③ [C] 는 27년 전 호일도와 묘인봉의 대결의 진상, 이자성의 ‘군도’와 ‘보물지도’에 관한 비밀, 며칠 전 전귀농의 죽음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③ [A] 의 상황과는 달리, ⑥가 공개되면서 작중인물 중 감추고 있던 악행이 드러나는 인물—바로 보수화상이다—이 진상의 공개자인 평아사(平阿四)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거나, ⑥를 통해 묘약란의 비녀 속에 보물 지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안 작중인물들이 위력을 동원해 묘약란에게서 지도를 탈취하는 등의 행동을 자행한다. ③ [B] 와 ③ [C] 에서는 앞서 ③ [A] 와 달리, 진실의 폭로자 혹은 중요 사실 관련자가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박유희의 설명을 참고하여 이해하자면, ‘나중에 발생한 이야기’가 활성화되고 진실의 폭로자 등이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공포소설과 긴박소설이 동일하지만, ‘스릴러는 수용자 즉 독자에게 작중인물과의 동일시가 발생하여 텍스트 안에 존재하면서 감정을 공유하도록 하는 서사’인 반면, ‘서스펜스는 독자가 텍스트 밖에 존재하면서 작중인물의 상황에 개입할 수 없을 때 느끼는 초조와 긴장의 감정’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sup>18)</sup> ③ [B] 와 ③ [C] 은 공포소설보다는 긴박소설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것은 ③ [B] 와 ③ [C] 에서 ‘현재 이야기’의 활성화 정도가 다음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즉 ④의 사건을 촉발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점이다. ③ [A] - ③ [B] - ③ [C] 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현장에 있는 이자성의 ‘군도’와 묘약란의 비녀 속 지도가 이자성이

17) 츠베탕 토도로프, 앞의 책, 88쪽.

18)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지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3 추리물』, 이론과실천, 2011년, 26~28쪽 참조.

막대한 재물을 감춰둔 장소를 알려줄 것이다—을 통해 작중인물들이 보물찾기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이야기’는 ④—⑤—⑥으로 계속 진행된다. 이것은 ‘먼저 일어난 이야기’와 ‘나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 전체 이야기를 완성하는 추리소설과는 다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③ [A] - ③ [B] - ③ [C] 는 일종의 추리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여러 추리소설 종(種)—이를 테면 ‘추리소설’, 공포소설, 긴박소설 등—의 복합적인 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추리소설로서의 자기 완결성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전체 이야기, 말하자면 『설산비호』라는 무협소설의 나머지 이야기를 추동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 부분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진용이 추리소설 이야기의 이원성을 활용하되 추리소설적 구성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협소설 이야기의 다양화를 위한 일종의 방도로서 차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진술자와 진술, 그리고 사건의 진상

#### 1) 진술+진술을 통한 진상으로의 접근

앞서 언급했듯이 『설산비호』에서는 ③ [A] - ③ [B] - ③ [C] 부분이 가장 흥미진진하다. ①과 ②를 통해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게 된 독자들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진상에 다가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③ [A] - ③ [B] 에서 이자성의 ‘군도’에 얽힌 사연으로부터 시작하여 27년 전 있었던 호일도와 묘인봉의 대결 및 그와 관련된 내막 등을 알게 되며, ③ [C] 에서는 전귀농의 실체와 죽음에 관련된 진상을 알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설산비호』에서 독자들이 관련 진상과 내막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통해서라는 점이다. 사건과 관련된 진상이 작중인물의 진술, 즉

회상에 기반을 둔 ‘설명적 플래시백’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sup>19)</sup>

작중인물의 진술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 『오리엔트 특급 살인』(1934)이 대표적이며, 구로자와 아키라의 영화 『라쇼몽』(1950)이나 장이머우의 영화 『영웅』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화 『라쇼몽』은 『설산비호』와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었는데<sup>20)</sup>, 주요 작중인물의 진술이 작품의 중요한 부분과 내용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영화 『라쇼몽』(과 원작소설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단편소설 「덤불 속」)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작중인물의 진술이 서로 달라 진술이 더해질수록 진실은 오히려 미궁에 빠져버리는 반면, 『설산비호』의 경우는 진술자의 진술이 더해지면서 사건의 전말과 진상이 점차 드러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sup>21)</sup>

그런데, 『설산비호』에서도 진술자의 진술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 진술자의 신분과 정체, 정보를 얻게 된 상황 등에 따라 진술의 내용과 성질, 또는 주관점이 달라진다. 각 진술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다. 진술에 진술이 더해져 합쳐지고 수정되면서 비로소 사건의 전말과 진상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작가 진용에 의해 진행된다. 마치 퍼즐을 맞춰가듯 작가 진용은 각각의 진술자와 진술을 조각조각 배치하고 짜 맞춰 점차적으로 사건의 전말 혹은 진상과 악한의 실체를 드러낸다.

19) 이브 피테르, 앞의 책, 88쪽 참조.

20) 엔자옌(嚴家炎) 교수와의 대담에서 진용은, 『설산비호』의 서술 방식이 영화 『라쇼몽』이나 그 원작소설보다는 오히려 『친일야화』에서 많은 부분 계발 받았다고 밝혔다. 嚴家炎, 『金庸小說論稿』, 144-145쪽 참조.

21) 영화 『라쇼몽』과 원작소설 「덤불 속」의 경우는 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따져감으로써 인간 본성에 대해 탐구하는 반면, 『설산비호』는 정의와 선을 추구하는 협객의 정신을 드날리지만 한편으로는 진리에 대한 고정된 관점을 드러내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루둔지는 영화 『라쇼몽』 등은 위대한 영화 혹은 문학 작품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반면, 『설산비호』는 통속문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였다. 盧敦基, 『金庸小說論』, 浙江文藝出版社, 2000年, 37-38쪽 참조.

아래에서는 그 구체적인 양상을 크게 두 가지 부분, ③ [A] - ③ [B] 와 ③ [C] 로 나눠 살펴볼 것이다. ③ [A] - ③ [B] 와 ③ [C] 는 각각 진술자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정보의 성격이나 작품 내 역할에서도 차이가 난다. 즉, 전사 A-B에는 이자성의 ‘군도’, 그의 네 호위무사 집안 간의 대를 이은 보복전, 호일도와 묘인봉의 대결과 그 대결 뒤에 숨겨진 진실, ‘군도’와 짝을 이뤄 이자성이 남긴 막대한 재물을 찾을 수 있는 단서인 ‘지도’의 존재 등에 관한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전사 A-B는 『설산비호』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과 사연을 두루 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앞서 ③ [C] 가 ④의 사건을 촉발시켰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따지면 C는 ①~⑥까지의 사건이 벌어지는 건륭 45년 3월 15일보다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①~⑥까지의 사건에 선행하여 ①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C는 『설산비호』 이야기의 직접적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다.

## 2) 4인의 진술과 전사 A·B의 진상

③ [A] - ③ [B] 의 진술자는 보수화상, 묘약란, 평아사, 도백세이다. 이 중 가장 문제적 진술자는 보수화상이다. ①에서 여러 무리가 첩합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중, 그는 우연히 이 무리와 합류하게 된다.<sup>22)</sup> 설산비호의 방문에 대비하여 옥필산장의 주인인 두희맹(杜希孟)이 여러 무림 고수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보수화상이었다. 보수화상에 의해 무리의 인물들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지어진 옥필산장을 방문하게 되고 옥필산장이 외부와 단절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sup>23)</sup> ③ [A] - ③ [B] - ③ [C] 가 전개된다. 보

22) 이런 우연적 요소를 중국 소설에서는 ‘교합(巧合)’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통속소설을 비롯한 문학 작품에서 우연적 요소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역시 우연의 남발은 작품의 수준을 떨어뜨린다. 가오신(高鑫)은 진용 소설은 ‘기발하고 독창적으로(既奇又新)’ ‘우연’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연을 위한 역시 우연(爲巧合的巧合)’이 아니라 ‘스토리과 인물에 이바지하는(爲情節·人物服務的)’ 우연이라고 강조하였다. 高鑫, 「淺談金庸小說中的“巧合”」, 『閱讀金庸世界』, 上海書店出版社, 2000年, 200·206쪽 참조.

수화상은 첩합 속의 물건이 이자성의 ‘군도’임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작중인물들에게 이자성과 네 호위무사, 비천호리의 아들, 그리고 ‘군도’와 관련된 사연을 전달한다. 묘인봉의 딸 묘약란 역시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다며 관련 사실에 관한 진술에 동참한다. 그런데, ③ [A] 를 통해 전사A의 윤곽이 드러남과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화상은 어떻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 의문은 ③ [B] 에서 곧바로 밝혀진다. 27년 전인 당시, 보수화상은 보잘것없는 시골 의원으로서 전사B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번에도 보수화상의 진술은 당시 닷새에 걸친 호일도와 묘인봉의 대결 및 그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전달한다. 진용의 무협소설에서 호일도와 묘인봉의 대결은 손꼽히는 장면으로 회자된다.<sup>24)</sup> 호일도의 협객으로서의 개성과 품격, 생사를 건 대결을 벌이는 와중에서 드러나는 호일도와 묘인봉의 서로에 대한 신의와 존중, 우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순간과 방식 등은 진용의 무협소설적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런데, 보수화상의 진술이 끝나자 묘약란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다. 묘인봉에게 들었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일견 완전해 보이던 보수화상의 진술의 불완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녀가 지적하는 부분은 두 사람의 마지막 대결 장면이었다.<sup>25)</sup> 또한 호일도의 죽음은 패배를 인정한 자결이 아니라 묘인봉의 칼에 독약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

23) 작품의 주요 인물이 외부와 단절된 외딴 곳에 고립되는 상황은 추리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설정이다. 옥필산장에서의 상황은 보수화상에 대해 복수를 하기 위해 평야사가 외부와의 연결선을 파괴하면서 초래되었다.

24) 曹正文, 『金庸小說人物譜』, 知書房出版社, 臺北, 1996年, 148쪽.

25) 그녀에 의하면, 두 사람은 마지막 날 서로 상대방의 무술을 사용해서 대결해보자고 합의하였다. 호일도는 묘가검법(苗家劍法)을, 묘인봉은 호가도법(胡家刀法)을 구사하기로 한 것이다. 마지막 날 대결은 마치 무예 연습과도 같았는데, 이 와중에 실수가 발생하여 묘인봉의 도법에 의해 호일도가 팔에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런데, 묘인봉이 사용한 도(刀)—그들은 원래 자기 무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무기를 빌려 사용 중이었다—에 독이 묻어 있어 호일도가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sup>26)</sup> 대결의 당사자이자 냉정하지만 거짓을 모르는 협객 묘인봉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 그녀의 진술이 진실에 더 가깝게 들리는 게 사실이며, 이에 따라 보수화상의 진술이 의심받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이어진 평아사의 진술은 보수화상의 정체와 그의 거짓을 폭로한다. 불완전한 보수화상의 진술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평아사는 당시 객잔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려운 처지에 있던 자신을 구해준 호일도의 인품에 반해 그를 돕고자 하였던 평아사는 뜻하지 않게 (보수화상의 젊은 적 이름이었던) 염기(閻基)와 관련된 진상을 알게 되었다.<sup>27)</sup> 그의 진술은 염기의 죄상을 밝히는데 주안점이 놓였다.<sup>28)</sup> 먼저, 그는 묘인봉의 칼에 극독을 발라 호일도를 죽게 만든 이가 염기라고 여겼다—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호일도가 갖고 있던 첩합 속의 재물을 가로챤 욕심으로 그를 죽게 했다고 생각하였다—이 첩합은 나중에 전귀농이 이자성의 ‘군도’를 보관하는 데 쓰이게 된다. 또 대결을 피하고자 호일도가 염기를 통해 묘인봉에게 알리려 했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염기가 중간에서 제대로 전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두 사람의 대결을 막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첫째, 네 가문이 대대로 보복전을 벌이게 된 상세한 이유<sup>29)</sup>, 두 번째는 묘인봉의 부친과 전귀농의 부친의 죽음과 관련된 사실<sup>30)</sup>, 세 번째는 이자성의 ‘군도’ 외에 보물지

26) 보수화상에 따르면, 호일도의 처에 의해 묘인봉의 습관이 간파되어 호일도가 묘인봉을 이길 방도를 얻게 된다. 마지막 날, 호일도 역시 묘인봉의 허점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처의 조언을 따를 수 없었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다. 이 주저하는 순간, 호일도는 반대로 묘인봉에게 틈을 보이게 되어 패배에 이르게 된다. 호일도는 목숨을 끊어 패배를 인정하고, 호일도의 처 역시 남편의 뒤를 따른다.

27) 호일도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호일도의 갓난아이를 전귀농의 마수로부터 구해냈다. 그 아이는 평아사의 도움으로 설산비호로 성장하였다.

28) 평아사는 설산비호를 도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옥필산장에 먼저 도착하였다. 그러다 염기를 발견하고 그에게 보복하기 위해 외부와 통하는 옥필산장 내 장치를 파괴, 염기를 비롯한 이들을 고립시키기까지 하였다.

29) 주13)을 참고할 수 있다.

30) 호일도는 그들 죽음의 원인과 장소 등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끔찍한 진상을 말로 전달하기가 꺼려져, 부인과 갓난아이를 안전한 곳에 안착시킨 후 돌아와, 묘인봉 일행을 부친들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직접 안내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도 관련 사실<sup>31)</sup> 등이다.

평아사의 진술을 통해 전사①·②의 중요한 대부분의 사실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보수화상의 악행과 그의 거짓말이 폭로되고, 그가 어떻게 ‘군도’ 등과 관련된 상황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풀린다. 보수화상은 호일도가 쓴 편지를 전귀농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사실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호일도로부터 직접 전해 들어 관련 내막을 알고 있던 것이다.

평아사가 볼 때, 염기는 호일도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래서 염기에 복수를 하고자 무리들을 옥필산장에 고립되도록 만들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사실 또한 진실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의 진술 역시 불완전하였다. 도백세의 진술은 그것을 밝힘과 동시에 그 불완전함을 보충하였다. 도백세는 전귀농의 오랜 동료이자 수하였다. 그 역시 당시 전귀농의 일행으로서 닷새 동안의 일정에 동참하였다.<sup>32)</sup> 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 첫째, 전귀농이 호일도의 전달 내용을 염기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고의로 묘인봉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그에 의해 대결이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염기가 칼에 독을 바른 것은 바로 전귀농의 머리에서 나왔다. 전귀농이 호일도, 묘인봉 두 사람을 해하고자 하여—하나의 부친의 원수, 다른 하나는 자기를 업신여기는 자<sup>33)</sup>— 도백세에게 독을 쓰도록 한 것을 도백세가 염기에게 대신 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실상은 전귀농이 염기보다 더 나쁜 자임이 드

31) 이자성은 북경을 함락시킨 후 후일을 대비, 부자들에게 막대한 재물을 강탈하여 모처에 감춰두고 지도를 남겼다. 하지만, 이 장소는 지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도’가 함께 있어야 찾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비천호리는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전하여 호일도 역시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묘인봉에게 이 사실을 알려 재물을 획득, 청조정에 대항하는 활동에 쓰도록 할 요량이었다.

32) 전귀농은 묘인봉이 호일도를 제압하도록 하기 위해 대결 중에 암수를 쓴다거나, 한밤중에 호일도 부부를 습격한다거나 하는 등의 술수를 썼는데, 도백세는 전귀농의 수하들과 함께 이를 수행하였다.

33) 두 사람의 정정당한 대결에 전귀농이 암수를 써서 개입하는 데에 대해 묘인봉은 대단히 못마땅해 하였고, 전귀농은 이런 묘인봉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러난다. 이전까지 전귀농은 목적을 위해서는 비겁한 수를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인간 정도로 그려질 뿐이었지만, 도백세의 진술을 통해 맹목적인 복수심에 호일도를 죽게 하고,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다는 이유로 묘인봉마저 죽이려 한 사악한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네 사람의 불완전한 진술이 더해지면서 전사④·⑤와 관련된 전말의 대부분과 보수화상 및 전귀농의 악행이 드러난다. ③ [A] - ③ [B] 은 한편의 추리소설로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하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과 설명되어야 할 공백이 존재하였다. 아직, 묘와 전의 부친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 보물지도의 구체적 행방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전귀농과 관련해서는 더 밝혀져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그는 『설산비호』 이야기의 시작부터 이미 세상을 떠난 존재였다. 『설산비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호일도이지만<sup>34)</sup>, 중요 사건의 중심에는 전귀농이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 등과 관련된 공백이 설명될 필요가 있다. ③ [C] 의 진술은 주로 이와 관련된 것이다.

### 3) 3인의 진술과 전사⑥의 진상

③ [C] 에서는 『설산비호』의 ‘현재 이야기’인 ①~⑥이 일어난 날로부터 불과 며칠 전 밤에 일어난 사건이 진술된다. 그날, 천룡문 북종(北宗) 장문 전귀농은 무림을 떠나는 의식인 봉검의식(閉門封劍)을 치렀지만, 밤에 도자안의 화살이 가슴에 박힌 채 주검으로 발견된다. 현재인 건륭 45년 3월 15일 아침 녀에 벌어진 각축전은, 도자안과 도백세 무리-그들은 전귀농을 죽이고 그의 철함을 훔쳐 달아났다고 의심 받았다-, 그들을 쫓는 천룡문 인사들, 청의 어

34) 진용도 이렇게 말했다. “『설산비호』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실 ‘호일도’다. 호비의 성격은 이 작품에서 너무 단조롭다.” 진용이 후속작 『비호외전(飛狐外傳)』을 통해 ‘설산비호’ 호비의 험객으로의 성장 과정을 따로 그려낸 것은 바로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覃賢茂 編著, 『金庸武俠小說鑑賞寶典』, 四川人民出版社, 成都, 2001年, 61쪽.

전 시위 유원학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벌인 것인데, 그들이 서로 쫓고 쫓기는 이유, 전귀농의 죽음과 관련된 사연, 그리고 ‘보물지도’의 행방 등이 ③ [C] 에서 드러난다.

③ [C] 에서 C에 대해서 진술하는 자는 은길, 도자안, 유원학이다. 은길은 천룡문 남종(南宗) 장문인로서 전귀농의 은퇴 뒤 향후 10년 간 천룡문 전체를 대표할 인물이었다. 그는 천룡문의 검보(劍譜), 역대 대표의 종첩(宗牒), 천룡문에서 보관하는 ‘군도’ 등을 넘겨받기 위해 봉검의식에 참여하였다. 그의 진술은 비교적 간단하였다. 전귀농이 밤이 되어도 건네줘야 할 물품들을 자신에게 건네지 않아, 항의 차 전귀농을 찾아 갔다가 전귀농과 완사중 간의 이야기를 엿들었다—전귀농의 딸 전청문과 제자 조운기의 사통에 관한 추문—는 것이었다.

다음 진술자는 도자안이였다. 그의 진술은 누명, 즉 전귀농을 살해하고 ‘군도’가 든 철함을 훔쳐 달아났다는 혐의를 벗기 위한 해명에 가깝다. 그날 밤, 그는 우연히 약혼녀 전청문의 비밀, 주자양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sup>35)</sup>, 마침 전귀농의 갑작스런 부탁이 있어 이것이 자신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이라 생각한다.<sup>36)</sup> 다만, 부탁을 거절하러 갔다가 그사이 전귀농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인기척이 들리자 탁자 위에 있던 ‘군도’와 (전귀농이 보고 있던) 종이쪽지를 챙겨 달아났다는 것이다. 그 종이쪽지는 설산비호가 보낸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설산비호가 전귀농을 살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는 벗을 수 있었지만 그의 주장은 틀린 것이었다. 이것은 유원학에 의해 밝혀진다.

청 조정의 18명 대내 시위 중 한 사람인 유원학은 조정의 명을 받고 봉검

35) 전청문은 몰래 낳은 아이가 죽자 외진 곳에 시신을 묻으려 했고, 주자양은 전귀농의 ‘군도’를 훔쳐 역시 외진 곳에 묻어 숨겨놓으려 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의 비밀이자 약점을 알게 되었다.

36) 전귀농이 철함을 건네며 관외에 갔다 묻으라 부탁했는데, 처소로 돌아와 확인해 보니 철함이 빈 상태였다. 도자안은 자신이 철함을 훔쳐 달아났다고 무고하여 전청문과의 혼사를 깨려는 전귀농의 계략임을 간파하였다.

의식에 참석하였고, 전귀농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그날 밤 몰래 그의 방에 잠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진술 과정에서, 전귀농이 묘인봉을 팔아 청 조정에 빌붙고자 했다는 악행이 추가적으로 드러난다<sup>37)</sup>—. 방 밖에서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지만—예를 들어, 조자안이 진술한 전청문이나 주자양에 관련된 사실들—, 방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는 정확히 진술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전귀농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며, 그 전에 묘인봉의 방문이 있었다는 것이다.<sup>38)</sup> 묘인봉은 주자양이 묻은 ‘군도’와 전청문이 묻은 아이의 시신을 전귀농에게 전했다—조자안이 챙긴 ‘군도’는 묘인봉이 놓고 간 것이었다—. 한편,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유원학은, 이자성의 재물을 찾을 단서인 지도가 묘약란의 비녀 속에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③ [A] - ③ [B] 에서는 의문으로 존재했던 보물지도의 행방이 여기서 드러난 것이다. 이로써 못 무리들은 ④의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이자성의 ‘군도’와 ‘지도’의 쓰임을 알게 된 데 이어 그 행방을 알게 됨으로써 묘약란으로부터 지도를 빼앗아 재물을 찾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다.

③ [C] 의 세 진술자의 진술 역시 각각은 불완전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만을 진술할 수 있었다. 은길은 말할 것도 없고, 도자안은 방 안에서 벌어진 전귀농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유원학 역시 방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진술이 더해지면서 퍼즐이 맞춰지듯 전반적인 상황이 드러난다. 특히, 그날 밤 전귀농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가 스스로 자결을 하였는지, 도자안은 어떻게 ‘군도’를 챙길 수 있었는지, 보물지도가 묘약란의 비녀 속에 있다는 사실 등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로써 작중인물은 물론이고 독자들 역시 몰랐던 사실의 상당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앞서와 마

37) 전귀농은 묘인봉을 잡아들여 그로부터 보물지도를 탈취, 이자성이 남긴 막대한 재물을 청 조정에 바치겠다고 장담하면서 청 조정과 결탁하였다. 유원학이 봉검의식에 참여한 것은 그 비밀을 쫓아내거나 혹은 직접 재물을 손에 넣을 방도를 찾기 위한 것이다.

38) 전귀농은 설산비호의 방문이 가져올 두려움, 묘인봉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압박과 그에 대한 죄책감, 묘인봉의 처 남란(南蘭)이 남긴 상실감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찬가지로, ③ [C] 역시 한 편 추리소설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다. ‘다 계획이 있었던’ 진용은 각 진술자의 진술을 더하고 짜 맞춰 전사(A)·(B)·(C) 대체적 전말과 악한의 중요한 악행을 밝혀냈다. 다만, 사건의 전말은 아직 다 드러난 것이 아니며, 심지어 ③ [C]의 유원학의 진술을 통해 새로운 의문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또한 진용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계획에 의하면, 무협소설 『설산비호』의 이야기가 끝날 때 남아있던 의문도 빠짐없이 밝혀지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4) 남은 ‘현재 이야기’와 남아있는 의문의 해소

③ [A] - ③ [B] - ③ [C]에서 진용은 진술자의 불완전한 진술을 더하고 더하는 방식을 통해 사건의 진상과 악한의 실체에 접근해 들어갔다. 하지만, ③ [C]는 ④의 사건을 촉발시켰고, 이후 ⑤-⑥의 남은 ‘현재 이야기’가 전개된다. ③ [A] - ③ [B] - ③ [C]를 통해 『설산비호』가 추리소설의 이야기 방식과 기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남은 이야기에서 진용이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을 해소해주는 방식 또한 살필 필요가 있다.<sup>39)</sup>

39) 중국 소설과 관련하여 ‘현념(懸念)’이라는 개념이 있다. 영어 ‘서스펜스(suspense)’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중국 고전 통속소설에서 독자 혹은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궁금증을 유발하여 독서를 지속하거나 작품에 좀 더 몰입하게 하는 장치나 기법 또는 설정 등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李鵬飛, 「中國古代小說懸念的類型及其設置技巧」, 『文學藝術』, 第十三卷, 第3期, 2013年, 79~80쪽 참조) 서사 일반과 두루 연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특히 통속소설 등에 있어서는 대단히 빈번하게 활용되는 기법 또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통속소설은 흥미와 궁금증을 유발하여 독자로 하여금 독서를 지속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설산비호』에서도 ‘현념’의 활용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A]-③ [B]-③ [C]은 ‘현념’의 기반 위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념’이라는 개념의 폭이 너무 넓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여기서는, 독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의문점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국한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진용 소설의 ‘현념’ 양상에 대해서는 陳墨, 『金庸小說藝術論』, 百花洲文藝出版社, 南昌, 1999年, 103~112쪽을 참고할 수 있다.

남은 ‘현재 이야기’에서 해소되어야 할 의문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전귀농 부친과 묘인봉 부친의 죽음과 관련된 진상,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유원학의 진술을 통해 생겨난 의문으로, 각각 전귀농이 청 조정에게 장담한 묘인봉을 생포할 계획, 전귀농과 묘인봉, 그리고 한 여인 간의 관계이다. 네 번째는 ②에서부터 거론되었지만 여전히 공백으로 존재하였던 문제, 즉 설산비호 호비가 옥필산장으로 두희맹을 방문하는 이유와 목적 등이다.

첫 번째 의문은 ④의 사건을 통해 해소된다. ‘군도’와 보물지도를 가지고 이자성이 남긴 재물을 찾아 나선 무리들이 재물이 숨겨진 얼음 동굴 속에서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은 친구로서 함께 재물을 발견하였지만, 탐욕으로 인해 서로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임이 밝혀진다.

⑤-⑥부분에서는, 두희맹이 강호의 고수들을 초빙해온 가운데-여기에 청의 대내 어전시위 무사 무리가 새로 결합한다-, 두희맹과 어전시위 새(賽) 총관 등의 계약으로 위협에 처하게 된 묘인봉을 설산비호 호비가 구해주지만, 결국 묘인봉과 호비가 최후의 결전을 치르며 이야기가 마감된다. 나머지 세 의문은 이 부분에서 해소된다.

전귀농은 개방(丐幫)의 범(范) 방주를 이용하여 묘인봉을 복경으로 유인, 생포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이 방안에 착안한 어전시위 새(賽) 총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범 방주를 구슬려 옥필산장에서 묘인봉을 곤경에 빠트린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전귀농의 계약은 전지적 시점을 통한 작가의 설명을 통해, 새 총관의 계약은 그가 타인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이뤄진다. 이 두 방식은 진용이 다른 작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의문, 각각 전귀농과 묘인봉, 그리고 묘인봉의 아내이자 묘약란의 어머니였던 ‘남란’과 관련된 사연<sup>40)</sup>, 그리고 설산비호가 두희맹과

40) 묘인봉의 아내였던 남란은 호일도 부부의 남다른 애정만을 기리는 남편에 실망하던 차에 전귀농의 꾀임에 넘어가 남편과 어린 딸을 버리게 된다. 하지만 전귀농의 속셈은 묘씨 소유의 지도의 향방을 알아내기 위한 것임을 알아차리고는 상심과 자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묘인봉은 자신의 무심함을 탓하고 반성하게 된다. 그가 전

맺게 된 악연<sup>41)</sup> 등은 묘약관과 설산비호 호비가 자기 부모에 관해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알려진다. 사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한 의문의 해소는 ③ [A] - ③ [B] - ③ [C] 에서 보이는 진술자의 진술 활용 방식과 유사하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두 사람이 모두 완전한 진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③ [A] - ③ [B] - ③ [C] 에서 불완전한 진술이 차츰 더해지면서 보충되거나 시정되는 방식보다는 긴장도가 훨씬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진영은 ‘다 계획을 가지고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하나까지 빠짐없이 해소해주고 알려주며 이야기를 마무리짓는다. “제시된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함으로써 독자에게 의문을 남기지 않는다”<sup>42)</sup>, 라는 일반적으로 추리소설에 요구되는 사항을 『설산비호』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다—사실, 여타 다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건의 전말과 진상에 관한 의문을 해소해주는 데 있어서는 ③ [A] - ③ [B] - ③ [C] 에서의 방식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리소설적 기법을 활용했을 때 이야기의 긴장도와 흡입력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이 자체가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산비호』의 마지막 장면에서 끝으로 다시 한 번 독자에게 의문을 던졌던 것<sup>43)</sup>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노고를 역설(力說)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귀농을 찾은 것은 남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딸의 이름이 ‘약란(若蘭)’인 것은 이를 증명한다.

41) 호비는 자신의 모친이 원래 두희맹과 사촌지간이었고, 부모가 일찍이 이자성의 재물을 숨겨둔 곳을 발견해 묘와 전 부친의 죽음과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었으며, 부모의 사후 두희맹이 자신을 냉대하고 모친의 유품을 넘겨주지 않아 그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 두희맹을 방문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전해준다.

42) 이은자, 「역사추리소설의 대중성과 문학적 가능성」,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년, 241쪽.

43) 마지막 장면에서 진영은 다음과 같이 의문을 던지며 열린 결말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종결한다. “호비는 무사히 돌아가 그녀와 재회할 수 있을까? 그는 마지막 칼날을 (묘인봉을 향해) 내려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말 것인가?”

## 5. 나가며

무협소설 『설산비호』는 추리소설의 이원적 이야기 방식—과거에 일어난 ‘전사’와 건륭 45년 3월 15일에 벌어지는 ‘현재 이야기’ 양자를 통해—을 채택하여 ‘현재 이야기’ 속에서 ‘전사’와 관련된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잊힌 진상이 드러나도록 한다—특히, ‘전사’와 ‘현재 이야기’가 일대일이 아닌 다대일의 보다 복잡한 방식을 취한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전사’의 사실들을 단서로 하여 다시금 ‘현재 이야기’가 진행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설산비호』는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사의 전말과 진상, 악한의 실체 등을 밝히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다수 진술자의 진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게다가 이들 진술자의 진술은 그 신분과 정체, 정보를 얻게 된 상황 등에 따라 내용과 성질, 또는 주안점이 달라진다. 진용은 마치 퍼즐을 맞춰가듯 각각 진술자의 불완전한 진술을 조각조각 더하고 짜 맞춰 점차적으로 사건의 전말과 진상, 악한의 실체를 드러낸다. 『설산비호』의 ‘현재 이야기’에서도 진용은 남아 있는 의문을 하나하나 해소시켜주는데, 이때는 주로 전지적 시점을 통한 해설, 또는 완전한 진술을 통한 설명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보다는, 여러 진술자의 불완전한 진술을 더해 진상을 규명하는 방식이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었다.

사실, 『설산비호』는 편폭이 길지는 않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과 은연 관계를 담아내고 있고, 이야기를 사건의 발생 순서로 나열하지 않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을 짜 맞춰 복잡한 그림이 드러나듯 이야기를 완성시켰다. 이는 진용이 무협소설적 상상력과 캐릭터 창조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추리소설적 이야기 방식과 기법 활용의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역량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물론, 복잡한 이야기와 사연을 전개하는 데 따른 ‘옥의 티’가 없을 순 없다. 예를 들어, 루둔지는 두 가지의 ‘옥의 티’를 지적하였고<sup>44)</sup>, 필자가 확인한 새

로운 오류도 존재한다.<sup>45)</sup> 하지만, 추리소설 작품이나 혹은 그 기법 등을 활용하는 작품의 경우, 사건과 이야기를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야기를 과도하게 ‘짜 맞춘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약간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진용의 추리소설적 이야기 방식과 기법 활용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통속소설 작품에서 보이는 후세대 작가의 관련 성취와 완성도는 선배 작가 진용의 성취를 밑거름으로 삼았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은 차후를 기약한다.

- 44) 루분지가 지적한 ‘옥의 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도자안이 이자성의 ‘군도’를 입수한 후, 굳이 전귀농의 요청에 따라 ‘군도’를 관외의 외딴곳에 파묻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설산비호』 이야기의 본격적 시작은 ‘군도’가 든 첩함을 파묻으려는 도자안 등과 이것을 강탈하려는 유원학 등, 그리고 도자안을 쫓아온 천룡문 인사들의 각축인데, 전사③에서 알 수 있듯이 전귀농은 이미 죽었고, 그의 부탁은 원래 그가 짠 함정이었기 때문에 도자안이 ‘군도’를 관외에 파묻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굴 속으로 이자성의 재물을 찾아 나선 무리들을 설산비호가 ‘이 중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여 모두 동굴에 가뒤퍼리는 데, 원래 설산비호는 이 무리들의 행적과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악행 등은 그날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 설산비호는 이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악의를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 45) 필자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보수화상의 진술에 따를 때 세 호위무사가 ‘비천호리’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이자성이 패배한 청 순치 2년(1645년)으로부터 7~8년이 지난 때이다. 그들은 몇 년 간 ‘비천호리’의 행방을 찾다가 이루지 못하고 끝으로 오삼계에게 복수를 하러 갔다가 그의 휘하에 있는 ‘비천호리’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이야기의 비극은 이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평야사의 진술에서는, 세 호위무사가 순치 2년에 이미 ‘비천호리’를 만나 비극이 시작되는 것으로 서술한다. ‘비천호리’의 죽음 후, 그의 아들의 방문을 통해 이자성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확인한 세 사람은 향후 100년 간 이자성에 관한 비밀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말하자면, 순치 2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을축년(1745년, 건륭 10년)에야 비로소 이자성의 죽음과 관련된 사실을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호일도가 염기를 통해 묘인봉 등에게 관련 사실을 전한 때는 현재인 건륭 45년(1780년)으로부터 27년 전인 약 1753년이기 때문에 앞의 언약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는 이야기의 근간을 허무는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작품 전반에서 진용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리적 정합성을 꼼꼼하게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추리소설적 이야기 구성을 완성하기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유정원, 「중국 웹 소설 성장에 대한 소고」, 『중국과 중국학』, 34집,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8년, 5월.
- 이화진, 「중국의 플랫폼 ‘네이버’의 연결과 취향 공동체의 가능성: 웹소설 태그(標籤)를 중심으로」, 2024년 한국중국어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대중서사장르연구회 지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3 추리물』, 이론과실천, 2011년.
- 이브 뢰테르, 김경현 옮김, 『추리소설』, 문학과지성사, 2000년 4월.
- 이은자, 「역사추리소설의 대중성과 문학적 가능성」,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년.
- 츠베탕 토도로프 지음, 유제호 옮김, 「탐정 소설 유형론」, 『산문의 시학』, 예림기획, 2003년.
- 高鑫, 「淺談金庸小說中的“巧合”」, 『閱讀金庸世界』, 上海書店出版社, 2000年.
- 吳優, 「網絡空間中文學接受者的主體特徵」, 『藝術廣角』, 2019年 第1期.
- 陳墨, 『金庸小說藝術論』, 百花洲文藝出版社, 南昌, 1999年.
- 傅國涌, 『金庸傳』, 北京十月文藝出版社, 北京, 2003年 9月.
- 金庸, 『雪山飛狐·金庸作品集13』, 三聯書店, 1999年 9月, 第2版.
- 李鵬飛, 「中國古代小說懸念的類型及其設置技巧」, 『文學藝術』, 第十三卷, 第3期, 2013.
- 盧敦基, 『金庸小說論』, 浙江文藝出版社, 2000年.
- 覃賢茂 編著, 『金庸武俠小說鑑賞寶典』, 四川人民出版社, 成都, 2001年.
- 嚴家炎, 『金庸小說論稿』,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99年.
- 張秀奇·李志英 編著, 『一個人的江湖』, 中華工商聯合出版社, 北京, 2003年.
- Tzvetan Todorov, 『The Poetics of Prose』, Translated by Richard Howard, Cornell University Press, 1977.

## Abstract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tective Novel Narrative Techniques in Jin Yong's *the Flying Fox in Snow Mountain*

Yu, Kyung Chul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tective novel narrative techniques in Jin Yong(金庸)'s *the Flying Fox in Snow Mountain*(雪山飛狐). First, according to Todorov, the detective novel narrative consists of two stories: the crime story(called as the first story) and the investigation story(called as the second story). Jin Yong used the combination of the crime story(called as the past story) and the investigation story(called as the present story) in *the Flying Fox in Snow Mountain*. He combined the past story and the present story to compose the entire story, using a more complex method of combining three past stories into a single present story rather than a one-on-one combining. Also, as the story of the past is revealed, the story of the present unfolds anew under its influence. Second, Jin Yong used the incomplete statements of witnesses in revealing the whole case and uncovering the villain's misdeeds. The statements of witness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status, identity, and path through which they obtained the information. He adjusted each incomplete statements as if he is manipulating a puzzle, and eventually reveals the truth of the whole case, and the true face of a villain. This method had a great effect of increasing the reader's interest and immersion.

**Key words** : Jin Yong, the Flying Fox in Snow Mountain, Detective novel, Chinese popular novel, Tzvetan, Todorov

투 고 일 : 2024. 10. 10. / 심 사 일 : 2024. 10. 15. ~ 2024. 11. 15. / 게재확정일 : 2024. 11. 20.

